

신암 제139호 / 발행일 : 2022년 7월 17일

신암회보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요4:23~24)

특집_ 예배 회복

충성된 일꾼 삼으신_ 임직자 소개 및 소감문

제2부흥운동본부_ 행사 보고

기획_ 신암의 아들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며

찬송가 478장으로 국내에 알려진 이 찬양의 원곡 가사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절구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감탄만하기보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찬양이다.



This Is My Father' World - 참 아름다워라

작사 : C. Barny Robertson / Dp / Maltbie Babcock

1)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This is my father's world

나에게 들리니

And to my listening ears

모든 만물이 노래하도다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온 땅 가득 찬 노래소리

The music of the spheres

여기는 내 아버지의 나라이니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고백으로 평안하리다

I rest me in the thought

바위와 나무, 하늘과 바다 모두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주가 지으신 놀라운 기적이도다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2) 여기는 내 아버지의 나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절대 잊지 않으리

Oh, let me never forget

종종 악이 너무 강해보일지라도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
so strong

하나님께서 이순간에도 통치하신다

God is the ruler yet

여기는 내 아버지의 나라이며

This is my father's world

아직 전쟁이 끝난게 아니니

the battle is not done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모든 만물이 회복되리라

and earth and heaven be one

나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I have a father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He is my father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CONTENTS

02 좋은 찬양

04 담임목사 칼럼

영적 침체의 파고를 넘어
회복의 바다를 향해하라!

06 목자의 우물가

길을 걷다
- 김정희 목사

07 특집_예배 회복

2022년 상반기 예배 회복의 날
- 김성호 목사
5월 가정예배 인증샷

19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달구벌 탐방
- 심경희 권사

20 제2부흥운동본부_행사 보고

방과후 설렘 기타반
- 김현진 성도
제2의 교회 부흥은 예배 부흥으로부터
- 이재순 안수집사

23 기획_신앙의 아들

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며



09 교회학교 소식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기도제목

12 일대일 간증

받는 사람에서 주는 제자로의 삶
- 이세화 집사

13 충성된 일꾼 삼으신

임직자 소개 및 소감문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 권준범 장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
- 송지환 안수집사
작은 일에 충성된 자
- 김미정 권사

29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 퍼즐

30 선교지 소식

러시아에서 온 선교편지
-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

32 교회 소식(Photo News)

33 2022년 7월~10월 교회 행사안내

34 권찰 위로회

다시, 주님의 권찰 다음으로!!
- 정경숙 집사

35 새가족 소개



“영적 침체의 파고를 넘어 회복의 바다를 항해하라!”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프리카인들은 열심히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인을 통해 이유를 묻자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저를 같은 병원에 있는 동료 환자로 여겨 주십시오. 다만 조금 더 일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자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11:14~15)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가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받았을 때 광야로 들어가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탄식하며 애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왕상19:4) 위대한 성군 다윗도 영적인 침체가 온 적 있습니다. 그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자기 침실에 몰래 불러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32:4)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온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겔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막14:34)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는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침체가 오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학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후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시32:2) 고백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의 죄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죄에 눌러 힘들어 한 것입니다.

둘째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막중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지 않을 때 더욱 외로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패역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하나가 되어 금송아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세 주변에는 여호수아 외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4~15절과 같이 탄원했습니다.

셋째로, 육체적인 피곤과 영양부족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왕상 18장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상대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니고 있던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똑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 로렘나무 아래서 차리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곤한 그를 폭 재우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그를 깨우신 후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산 호렙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넷째로, 나눠 주기만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역자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자기는 공급받지 못하면서 계속 퍼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밥 먹듯이 타이르는 믿으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라.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다정하게 모셔들이라.”

다섯째, 큰 성취 후에 오는 공허감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나라를 정비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여 강대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성취를 맞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고 군대장관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그가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도록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홀로 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여유가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죄를 숨기고 지낼 때 그는 마음에 죄책감과 양심의 찢림을 이기지 못해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육체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을 갖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짐을 나눌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여섯째, 영적 전쟁을 위해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드윈 마크햄(Edwin Markham)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뎌 낼 때면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들여 마시고 즐기는 바람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환희를 알 수 있다. 슬픔은 마음에 기쁨의 자리를 넓혀 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나 이런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29~31)

올 해 우리 대구신암의 교회 표어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침체의 파고를 뛰어넘어 부흥의 뜻을 높이 달고 회복의 바다를 힘차게 향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닮으!

길을 걷다



김 정 희 목사
(사랑부)

길을 걸었다.

선선한 바람이 얼굴과 온몸에 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어르신들의 정겨운 소리도 있고, 젊은이들의 활기찬 음성도 날려 다닌다.

운동을 하느라 신나는 음악소리와 힘찬 기합의 울림도 넘어온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제법 팔팔거리며 흘러가는 물소리도 쪼개진다. 나도 있다고 새들의 울음소리 인지 웃는 소리인지도 한 몫을 한다.

털이 뽕뽕한 아기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 줄줄이 떼지어 다니며 물놀이를 한다. 물에서 번쩍이는 것이 보인다. 물고기들이 하늘을 향하여 장대 높이뛰기 마냥 몸을 뒤집으며 튕겨 오른다.

왜가리들이 도도하게 건다가 날카롭게 집중하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기다란 부리를 물속에 꽂아 승전고를 울린다. 입에 퍼덕이는 물고기를 물고 얹은 미소를 띠는 듯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치어를 비롯해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들까지 떼를 짓든, 홀로를 즐기든 유행을 한다. 물살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수달을 만날 듯하다. 잠깐 서서 바라보니 유유자적하게 쪽쪽 뿜어 나아간다. 혼자인가 보니 짝을 지어 있기도 하고 뽕뽕 언 얼음 위에서는 4마리의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온 것 마냥 잡기놀이도 하고, 안고 구르기도 하며 즐거이 논다.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아닌가, 먹이는 있나, 춥지 않을까’라는 사람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심지어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되려 가까이 다가와 눈을 마주치며 뽕뽕 바라보기도 한다. 뒤질새라 너구리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지르며 찹쌀떡 건넌다.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니 두어 마리는 건너지를 못하고 불안하게 건널 시기를 엿보고 있다.

셋노랑 작은 꽃들이 사랑거리다. 진보라 초롱 닮은 꽃들이 무리를 지어 떼창을 한다.

주황 꽃들이 여기저기 싱싱하게 솟아오른다. 억새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향해 질주한다. 이름 모를 여러 풀들까지 합세하여 무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길을 걸었다. 땅에 발을 딛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보이는 것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감사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숨씨에 감탄하면서... 

2022년 상반기 예배 회복의 날



김 성 호 목사
(2교구장,
전도/선교친교부 담당)

2022년 우리 대구신암교회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코로나로 오랜 시간 대면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진정한 예배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상반기 예배 회복의 날을 지면으로 보고드립니다.

- 주 제 : 예배를 다시 회복해 부흥하는 교회
- 일 시 : 1차 - 4월 17일(부활주일), 2차 - 4월 24일, 3차 - 5월 1일
- 주 관 : 친교부

❖ 준비 사항 ❖

1. 전교인 출석현황 파악

행사 두 달 전부터 구역장/권찰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출석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영상예배만 드리는 분들을 장기 결석자로 분류하여 행사를 준비 했습니다.

2. 기도로 준비하기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제목을 정해 기도하며 준비. 새벽기도회, 권찰 모임 시 행사를 위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3. 선물 준비

선물로 소금세트와 장미꽃 준비. 선물 주문 시 대략적인 평균 연령층, 유통기한, 선물 도착 시기, 당일 참석 가능 인원을 고려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예상 참석인원 대상자는 약 250명, 선물은 100개 주문함. 주의 은혜로 3차에 걸친 예배 회복의 날에 100여 분이 나와서 준비한 선물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4.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4월 첫 주부터 미리 게시하고 주보에 꾸준히 안내 하였습니다.

5. 초대장 및 손편지 발송

초대장을 만들고 담임목사님이 손편지를 작성하여 대상자(약 250명)에게 발송 했습니다.

6. 환영영상 제작

미리 대본을 작성하고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1, 2, 3교구 목양장로님, 1, 2, 3교구 권찰대표, 청년부, 담임목사님 촬영 했습니다.

7. 장식

당일 행사를 위해 행사 전날 교회 현관 입구와 강단 꽃꽂이, 중예배실에 장식부에서 연출 했습니다.

8. 행사 당일

교회 정문 앞에 부스를 설치하여 1, 2, 3교구별로 교구 전체를 파악하고 권찰 한 분씩을 세워서 장기결석자가 왔을 때 환영 하여 체크 했습니다. (미리 참석대상자 명단 준비)
오신 분들에게는 장미 꽃 한 송이씩을 드리고 예배 후에 장미꽃 받으신 분들은 중예배실에서 담임목사님의 환영 인사 및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로 다시 교회로 발걸음하신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예배

인증샷



하나님과
동행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기도제목

◎ 영아부

1. 주제 : 찾았다~ 하나님 나라

주제 성구 :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2. 기간 : 2022년 7월 10일(주일), 17일(주일) 장소 : 본교 나사렛실

3. 주요프로그램 :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는 신체활동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요리 활동으로 새롭이 버거를 만듭니다.

4. 코로나로 인해 신체접촉이 어려웠던 대그룹 활동과 요리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기획 했습니다. 영아부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부모님과 어린이와 교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 유치부

1. 주제 : 찾았다~ 하나님 나라

주제 성구 :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2. 기간 : 2022년 7월 9일(토)~ 10일(주일) 장소 : 본교 소예배실

3. 주요프로그램 :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교회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며 대근육활동(숨숨~~ 하나님 나라)을 합니다.

4. 한동안 대면으로 하지 못했던 성경학교 강습회에 갔을 때부터 감격스러웠고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유치부 친구들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 것처럼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 아동부

1. 주제 : "WHO ARE WE? 복음라이더스!"

주제 성구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7)

2. 기간 : 2022년 7월 23일(토)~24일(주일) 무박 2일 장소 : 본교 엠마오실

3. 주요프로그램 : '우리 마을 복음라이딩' - 예수님께서 마을 곳곳을 일일이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을을 생각하며 '복음 라이딩'을 통해 기부할 물품도 획득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 활동입니다.

4.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 성경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올 해는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예배시간으로 꽤 긴 시간 모두 모여 대면으로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대도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통한 교회의 새로워짐과 세상의 이로워짐을 위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게 되기에 배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복음의 전달자 즉 멋진 복음라이더들로 준비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제목〉

1.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2. 복음으로 우리 아동부가 새롭게 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3. 복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4.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라이더스로 살 것을 결단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 중등부

1. 주제 : '믿음의 터 위에서'

주제 성구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장 20절)

2. 기간 : 2022년 7월 23일(토)~24일(주일) 장소 : 봉화 비나리마을

3. 주요프로그램 : 이번 수련회의 핵심은 엄주선 강도사 순교기념 공원 탐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주선 강도사님은 6.25 전쟁 당시 피난을 미처 떠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화목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시고 순교하셨던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 점차 잊혀져가는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난 2020년 겨울수련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수련회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전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한 걸음을 걸어가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코로나라는 두려움 너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2. 수련회를 진행하기에 합당한 날씨와 건강을 주소서.
3.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 고등부

1. 주제 : 리빌딩 [Rebuilding]

주제 성구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 2:20~22)

2. 기간 : 2022년 8월 5일(금)~7일(주일) / 2박 3일 장소 : 울산 날개영성하우스

3. 주요프로그램 :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수련회로 말씀 특강(비전, 이성교제, 성경은 쉽다, 저녁집회), 마인드노크(아이스브레이크), 요리대회, 야외공동체게임, 조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고등부에서 함께 생활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도 친구들의 전체 얼굴을 모른 채 느낌으로만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수련회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어놓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게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제자로의 삶

안녕하세요. 이세화 집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된 일대일 제자양육자반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여 년 전 마하나임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집사님의 권유로 계속 미루어 두었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자반은 10주 과정으로 저희 14기는 매주 수요일 2부 예배를 마치고 2시간 정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담임목사님의 기타반주로 찬양을 드리고 난 뒤 2명씩 파트너가 되어 동반자와 양육자를 바꿔가며 성경공부와 삶 나눔을 하였습니다. 14기 양육자반을 통해 많은 집사님, 권사님과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배울 수 있어 매주 너무 기대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가 빠져있는 삶을 살아오다 과제로 주어진 성경읽기, 큐티, 설교기록 등으로 일주일이 채워지니 저도 모르게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시간에 양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눠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축복을 받기만 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며 많이 회개하고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왕성한 교회라고 하셨는데 많은 성도님이 참여하여 제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14기 양육자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 화 집사



장로·집사·권사 임직식

임직자 소개

장로장립



권준범



김삼종

집사임직



송지환



김정학



정명진



박정호



박인규



송승식



박성민



서정구



김치한



조호영

권사임직



김미정



이계선



권민희



김수경



최선이



김지현



김인숙



권영란



홍진영



서진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권 준 범 장로

할렐루야!!

먼저 죄와 허물뿐인 부족한 중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사역을 위해 장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4개월 피택교육을 받는 기간 내내 신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피택자 22명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한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은혜롭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피택자들을 교육하시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송기 담임목사님과 황정기 목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년시절부터 50대 중년의 지금까지 줄곧 본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동기생, 선배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나 결혼, 직장 등으로 각자 생활로 떠나가고 본 교회에는 여자 동기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77년이라는 그 긴 대구신암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 교회 중직인 ‘장로’ 임직은 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신실하신 신앙의 선배들도 많고 많은데 하나님은 왜 하필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피택교육 기간 내내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노회, 신우회 등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믿음의 형제들과 자연스럽게 서로 교회 소식을 주고 받는데 제가 대구신암교회 다닌다고 소개를 하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정말 좋은 교회 다닌다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 일색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온 대구신암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 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직분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



송 지 환 안수집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암의 모든 지체를 사랑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22명의 항존직을 세우시고, 4개월 동안 선한 길로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암의 모든 성도님, 교역자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피택자 훈련 기간 동안 광승기 담임목사님과 황정기 목사님의 끝없는 헌신과 열정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선 길의 첫 걸음을 떼야 할 때, 호기심에 기분이 들뜨고 좋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을 때 가장 앞섰던 저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2021년은 제게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을 때 깊이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때에 이 막중한 책임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조금씩 자라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안수집사로의 피택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4개월의 피택 훈련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수줍게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체계적이지 못한 신앙을 여러 훈련을 통해 조금이나마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를 느끼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내가 찬양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 이라고 전심,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택 훈련을 받으며 항존직에 대한 여러 걱정과 염려는 잘못된 오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과정이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품과 허용하심을 알고 기뻐하며,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는 스스로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된다.”

대구신암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해로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훈련 기간에 배운 지체의 원리를 담대하게 실천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회를 엿봅니다. 훈련기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훼방을 놓으며 저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로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신암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김 미 정 권사

할렐루야!

저를 이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성도로서 제가 받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불평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선배 권사님들의 뒤를 따라 묵묵히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궂은일 마다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서툴고 배워야 할 일이 많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라는 말씀처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담임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Boss(가라-지배자)가 아니라 Leader(같이 가자-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가는 자세로 저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아멘. 



장로·안수집사 임직 소감문

김삼중 장로: 자격없는 자를 몸 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직분에 합당한 영적분별력을 갖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김정학 안수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대구신암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택교육 동안 매일 이어지는 QT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직분자의 소명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명진 안수집사: 자격증 시험과 관리집사의 일 그리고 피택교육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힘들고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잘 감당하였고 교육 기간이 짧게 느껴섭니다.

박정호 안수집사: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피택교육을 통해 감사,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내려놓음과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인규 안수집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택자 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저에게는 새롭게 만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승식 안수집사: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피택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피택 교육을 통하여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생길때에 늘 주님께 기도하며 즐거움 또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한다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이란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섬김에 기쁨으로 나아겠습니다.

박성민 안수집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되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서정구 안수집사: 부족한 종을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데마와 같이 되지말고 또한 그렇게 살지말라고 귀한직분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oli deo gloria.

김치한 안수집사: 교육을 받는 동안, 직분의 의미를 곱씹고,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영 안수집사: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기간중 배우고 느낀것 결단한것 초심을 잃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기간중 수고하여 주신 박승기 담임목사님 황정기 목사님 회장님 총무님 재무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암의 모든 성도님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권사 임직 소감문

이계선 권사: 부족한 저에게 권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개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피택 교육받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권민희 권사: 피택교육을 통해 직분의 소중함과 자질에 대해 알게 되니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인 삶, 겸손한 직분자로 섬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믿음의 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김수경 권사: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존 직분자로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로 걱정이 참 많았지만 3일 동안 작정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너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헌신과 모범을 보여주신 선배 권사님들의 섬김을 본받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겸손과 낮은 자세로 성도님들의 기쁨으로 섬기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선이 권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피택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되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분 받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께 순종하며 전도에 힘써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김지현 권사: 부족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사명감을 가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 권사: 피택교육기간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저의 삶을 인도하신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보다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저를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권사로서 아름다운 인격과 인성을 갖추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영란 권사: 신임교회의 권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아멘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영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뒤를 이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사랑해주신 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서진아 권사: 피택교육 동안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드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가 하나님에게 중요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그를 향한 저의 사랑의 재확인인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는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직분을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달구벌 탐방

안녕하세요?

달구벌 탐방팀 동호회는 대구와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를 알아보고 문화를 이해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즐기는 팀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기만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삶의 여유를 느끼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듣고 배우는 시간도 가지면서 건강도 챙기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동호회가 없을까요?” 하는 몇몇 권사님들의 말씀에 뜻을 함께한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도시 대구의 근대골목투어, 400년 회화나무와 한옥고택의 옷골 마을, 문익점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남평문씨 세거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을 천천히 산책하는 옥연지 송해 공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 속에서 가벼운 트레킹으로 즐길 수 있는 팔공산 등등.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며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곳으로 찾아들고, 가을이면 단풍 길도 걸으며, 겨울 오면 따뜻한 곳에서 만담을 즐기는 그야말로 꽃명, 하늘명, 숲명으로 여유를 만끽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모이기 좋은 시기에 신설하게 됨에 한 자리에서 식사도 나누고,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말로 위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동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을 돌아보며 건강도 챙기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달구벌 탐방팀에 언제든지 함께해 주세요. 🍵



심 경 희 권사

방과후 설렘 기타반

방과후 설렘반은 지역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며 건전한 취미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반, 드럼반, 건반 반이 있고 저희 기타반에는 김민재, 홍지운, 김건우, 김재운 4명의 친구들이 차근차근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타를 배웠던 친구도 있고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지만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2대1 수업을 진행하니 친구들도 만족을 하고 기타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후 설렘반의 강사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도 많았고 토요일도 출근하는 현재 상황에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타를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다는 마음을 저한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 간직하면서 방과후 설렘반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기타반 레슨의 최종 목표는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요즘 10대가 열광하는 대중 가요도 좋지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일에 재능을 사용하고 찬양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 영향력들이 교회 내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뻗어나가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현 진 성도



제2의 교회 부흥은 예배 부흥으로부터!

제2부흥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제2운동본부)는 2년차 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올해는 비전에 따른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운동본부는 방과후학교 운영부, 문화교실 운영부, 스터디카페 운영부, 동호회 운영부, 새가족 운영부 등 5개의 운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운영부장 및 총무는 제직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제직회 부서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해 각 운영부의 계획과 활동 내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 순 안수집사
(제2운동본부 총무)

◎ 방과후학교 운영부

기존 프로그램(토요공부방, 신암어린이합창단)에 더하여 '방과후설렘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렘반은 매주 토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기타반 4명(강사 김현진 선생님), 건반반 4명(강사 송지은 선생님), 드럼반 4명(강사 민경찬 목사님)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보컬, 댄스반 등)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트렌드에 맞게 운영하여 교회 찬양 인도 및 작은 교회 찬양 섬김 활동과 청소년 선교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 문화교실 운영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 매월 ‘하모니 토요 문화 강좌’를 운영합니다.

5월에는 맞벌이 부부와 자녀 관계(계명대 조명실 교수), 6월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김종광 집사)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영향과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의 보편화로 참석이 저조하여 향후에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콘텐츠(파크골프 기본기 익히기, 커피 바리스타, 유튜브 제작, 악기 교습 등)를 개발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회 개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겠습니다.



◎ 스터디카페 운영부

스터디카페 운영부는 작년 키즈카페 운영부의 개선 운영부입니다. 스터디카페 구축을 목표로 시장 조사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분석을 한결과 입지 조건,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본 교회에서 추진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일에는 본교회 성도들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맘카페 모델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호회 운영부

코로나의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금년 18개 동호회를 새롭게 조직하여 지난 5월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0개 동호회, 300명 회원을 목표로 신규동호회 개설, 모임예산 지원, 홍보활동 강화 등 동호회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암의 아들 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며

우리교회 출신 고(故) 심정민 소령(추서·1993년생·공사 64기)은 2022년 1월 11월 경기 화성에서 F-5E 비행기로 훈련도중 추락하여 순직하셨습니다.



생사를 가른 10초. 조종사는 관제탑과 교신에서 두 차례 ‘이젝트(Eject·탈출)’를 외쳤다. 하지만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다가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공군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11일 추락 사고로 순직한 F-5E 전투기 조종사 고(故) 심정민(29) 소령. 그는 임무를 위해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하던 중 기체 고장으로 순직했다. [출처] - 국민일보



①

追 慕

대한민국 공군 소령 故 심 정 민
(1993. 2 ~ 2022. 1)

- 대구신암교회 성도
- 공군사관학교(64기) 졸업
- 제10전투비행단 전투조종사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2022년 6월 5일

①  **대구신암교회** 담임목사 **곽 승 기** 외 성도 일동



① 대구신암교회가 드리는 추모패
② 보국훈장 삼일장

③ 추모예배
④ 추모패와 위로금 전달식
⑤ 보국훈장 삼일장 전달식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2022년 1월 11일, TV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다. 코로나 관련 속보인가 해서 무심하게 채널을 넘기려는 순간 내가 아는 이름이 나왔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볼륨을 키우고 다시 화면을 주시했다. ‘추락한 공군전투기 조종사 심정민 대위....’ 그 뉴스 이후로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정민아....이 녀석아...’

내가 기억하는 정민의 모습은 아주 어릴적 모습이다. 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였는데, 첫째 누나인 정희가 우리반이라 매주일 누나를 찾으러 오곤 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간식을 줘도 누나 등 뒤에 숨기 바빴던 녀석, 누나들이 너무 예뻐하는 막내동생으로 기억한다.

시간이 흘러 고등부 시절 정민이가 떠오른다. 그 부끄럼쟁이 정민이가 드림을 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친 녀석의 머리를 문지르면서 물었다. “어쭈...정민이 많이 컸는데, 사람들 앞에서 드림도 치고...” 녀석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고등부 예배가 마칠 때쯤 누나들이 정민이를 찾으러 왔다.

“정희야 너는 동생이 그렇게 좋나? 이 정도 큰 머시마가 되면 좀 징그러울건데...”

“선생님 우리 정민이 하나도 안 징그러워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이쁜 동생인데요”

몇 년이 흘러 정민이가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교회에서 심집사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웃는 모습이랑 아들이 똑같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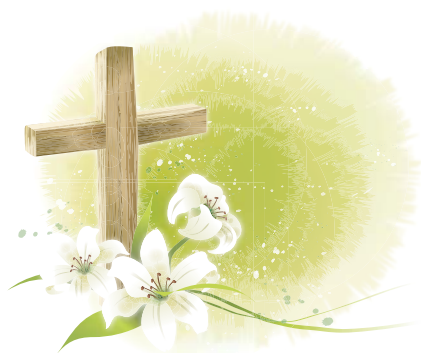
사고소식 들으면서 그 모습이 떠올라 마음 아팠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나도 이리 아픈데,

가족은 오죽할까?

“정민아, 씬은 자꾸 멧쩍어하는 니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어깨를 짓누르는 의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김종광 안수집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사랑하는 정민아~

선생님은 내가 떠난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귀여운 유치부 시절 때 내 결혼식 축하도 불러주었고, 중등부 시절, 사춘기라고 말썽부릴 만도 한데, 언제나 교회생활도 잘하고 수련회 때마다 함께 했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문득 마주 칠 때마다 다가와서 인사하던 너의 모습 보면서 선생님 어깨가 들썩했다. 가끔 보는 내가 이렇게 든든한데 너의 가족은 얼마나 듬직하고 좋았을까. 조국의 안보를 너에게 맡긴 국민들도 든든한 마음이었으리라.

지금은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지만, 훗날 천국에서 웃으면서 재회하자, 정민아!



이재운 안수집사(유치부, 중등부 담임교사)



정민이에게...

작년 결혼식에서 본 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고소식을 들으면서 ‘제발 제발’ 내가 아는 심정민이 아니라 동명이인이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사고 이후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정민이 너가 불쑥 교회 나타나서 “어이 재성이~” 이름 불러 줄 것만 같다.

너랑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내면서, 자주 놀러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면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있더라. 20살이 된 이후에 타지로 가게 되어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너랑 이야기하고 축구했던 것이 참 그립다.

“정민아! 아직도 일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훗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재성(마하나임 동기)



내 동생 정민이를 추모하며

정민이는 우리 집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쁘게 생겨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와 둘째 은정이랑 나이 터울이 있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흔히 ‘버릇없이’ 자랐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모님에게 억지 부리거나 말썽 한번 부린 적 없이 바르게 잘 자란 막내동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정민이를 임신하셨을 때 성경 필사로 태교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정민이 마음에 중심이 되고, 착한 성격도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퇴근 후, 회사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아빠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아빠 ~!”라고 하던 멋진 아들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는 주일 아침마다 믿지 않는 친구 2~3명을 꼭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장례식 때 해 준 말입니다.

“정민이가 자기를 위해 울면서 기도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자기가 힘든 사춘기 시절 엇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 준 친구라고 했을 때, 내 동생 정민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단단한 아이였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3 바쁜 수험생 시절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QT와 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바쁜 가운데 있더라도 정민이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부족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도 믿음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민이 일기장에서 ‘군중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믿지 않는 생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라고 적힌 것을 봤을 때, 누나 이기 전에 신앙의 선배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일기 마지막은 늘 기도제목과 찬양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힘든 사관학교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로는 가장 어리지만, 누구보다 의젓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도 매우 어른스러웠던 정민이입니다. 누나들이 사회생활, 결혼생활로 힘들어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빠처럼 누나들을 타일러주고 또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조언도 해주는 듬직하고 오빠 같은 남동생이었습니다. 공군 사관생도 시절과 조종 비행훈련이 힘들어도 부모님 걱정하실까 힘든 내색 한번 한 적 없고, 공군사관학교에서 앞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대표 비행을 하게 될 때도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길 하거나 뽐내서 자랑도 하지 않던 녀석입니다. 가족들이 더 유난을 떨면서 멋지고 대단하다 칭찬을 해주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정민이는 너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비행기 추락사고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정민이를 왜 데려가셨나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사고를 겪게 하셨나요?” 온 가족의 정신과 가슴이 찢어놓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민이를 데려가신 뜻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정민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분명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동생 정민아!

아직도 누나는 너에게 전화하면 “응 큰누나!” 하고 받아줄 것만 같은데... 너가 우리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가족 모두 슬픔이 너무도 크지만 네 뒤편까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중이야.

정민아,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맘껏 하며 편히 쉬고 있어. 우리 또 만나면 그때 누나가 꼭 안아줄께.

사랑해 정민아! 우리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자

심정희 성도(故 심정민 첫째 누나)

<고 심정민 소령에게 이글을 바칩니다.>

우리의 또 다른 별이 된 당신



이젝트... 이젝트...

두번의 탈출을 외치고도 당신은 이젝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충분한 10초.

당신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라고 원망과 분노가 치미는 질문같지않은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지산초. 능인중. 능인고를 나오며

축구를 사랑한 당신

부모님께서는 늘 알아서 척척하는 척척아들이었고

친구들에게는 늘 먼저 안부 전화하며 알뜰이 살뜰이 챙기는 살가운 친구였으며

선생님들에게는 음료수 한박스 수줍게 내밀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찾아와 감사함을 표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부모님. 친구. 선배. 선생님. 그 누구하나 당신에게 위로 받지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생님 정민입니다' 라고 더이상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당신.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줄 수 없나요?

당신의 카카오톡 창을 열고

대답없는 줄 알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자'라고 몇 글자 적어봅니다.

우리의 제자이자 우리의 선배인 고 심정민 소령

오늘 우리는 당신의 숭고하고도 따뜻했던 삶을 추모하기위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이가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가르침을 남기며 떠나갔습니다.

하늘을 사랑한 당신

하늘에 별이 되어

그곳에서 우리의 또 다른 별이 된 당신.

인연이 끈이 또 다시 우리를 이어주기를 마지막으로 외쳐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정민아 잘가라. 고마웠다.

고3 담임 선생님이
22년 2월 3일



온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퍼즐

1		2			11		12
3							
		4					
5							
		6		7			
	8						
	9						
10							

가로 열쇠

- 1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아내와 롯과 함께 올라간 장소(창 13장)
- 3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두 사람들을 고치신 장소(마 8장)
- 4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있는 지역(창 13장)
- 5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물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겁을 먹어서 빠진 사람(마 14장)
- 6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 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서자(창 16장)
- 9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사를 번제로 바치려고 갔던 장소(창 22장)
- 10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창 18장)
- 11 브두엘의 딸이자 이삭의 아내(창 24장)

성경퍼즐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름 문자로 전송)

보내실곳 : 김종광 편집장
(010-2712-7223)

본문 : 창세기 13~24장, 마태복음 8~14장



세로 열쇠

- 2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으로 하갈이 하나님을 뵈 장소(창 16장)
- 7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 세리(마 9장)
- 8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 소돔과 ○○○(창 19장)
- 12 위로의 촌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예언한 장소(마 11장)

138호 성경퍼즐 정답

“온 가족이 함께 푸는 성경퍼즐”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창	세	기		아	브	라	함
	베			담	합		
유	대	광	야				
			발			고	
에	노	스				페	
녹		룹				르	
		바	벨		가	나	안
	아	벨				무	

<당첨자 명단>

정필한 김옥희 김진우 오순자 전인아
김보영 진희관 김미애②

러시아에서 온 선교편지(2022. 4)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25~26)

할렐루야!

존경하는 광송기 목사님과 사랑하는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러시아에서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코로나 상황이 2월에 정점을 지나면서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2월 24일 우려하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벌어져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나토(NATO) 서방측과 러시아 간에 신냉전 상황으로 갈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토 서방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지만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핵무기까지 사용을 언급하며 서방측에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인 SWIFT에서 배제되어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개인사업자, 유학생들까지 무역거래 및 필요경비를 송금 인출을 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러시아경제 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민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방측과 러시아는 서로 영공까지 폐쇄하여 겨우 열려가던 비행길까지 막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러시아 국민들도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전 세계가 신냉전



▲ 부활절 예배



▼ 설날행사



▲ 한국어 수업(어린이반)



▲ 한국어 수업
(청소년반 : 시립도서관)

상황으로 가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선교사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상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전쟁까지 발생해 더욱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습니다.

특히 1월 29일에는 한국의 설날연휴를 맞아 코로나 상황이라 크게는 하지 못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고려인들에게 한국 문화알리기 '설날' 행사를 하였는데, 설날 소개, 떡국 먹어보기, 세배 하기, 윷놀이 등을 함께하며 한국전통문화도 알리고 전도활동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에는 협력교회인 뿌리미레니예(화목)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에 과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전쟁이후 만약 냉전 시대로 가서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하고, 러시아선교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팬 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 되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사랑하신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부탁 드리며 저희들 또한 함께 기도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 기도 제 목 ●

- 1)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화 되도록
- 2)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고, 이후 러시아와 서방이 냉전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 3) 머리 수술로 인한 서향정 선교사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 4) 막내 아들 민혁이가 EY(Ernst & Young)회계법인 인턴(시카고)과 학업을 잘 병행해 나가도록

2022. 4. 18 러시아에서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 드림

중보기도 세미나(2.9)



3.1절기념예배(2.23)



대외 장학금 전달(동대구신아)(2.23)



사순절 새벽
신약성경 통독회(3.2)



피택자 대구 성지 탐방(3.26)



일대일센터 입학식(3.27)



피택자 신암동산 방문(4.16)



세례식(4.17)



예배 회복의 날(4.17)



피택자 헌신예배(4.17)



은퇴목사회
부부 초청예배(4.19)



임직식(4.24)



어버이주일(5.8)



유아세례식(5.15)



청년 주관 오후예배(5.22)



신암토요강좌 하모니 첫강의(5.28)



행복한 유니게 학교 수료식(5.28)



지하 베들레헴실 및
기도실 청소(6.11)



권찰 위로회(6.14)



금요성령집회
(박종인 우크라이나 선교사)(6.17)



어린이대회 시상 및 발표(6.19)



식당 대청소(6.25)



신암토요강좌
하모니 두번째 강의(6.25)



2022년 7월~10월 행사 소개

교회 행사안내



7월 3일 (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
 13일 (수) 연합중보기도모임
 17일 (주일) 안수집사회 주관 오후예배(헌신예배), 정기당회
 31일 (주일) 동교회 모임

8월 7일 (주일) 이단경계주일
 17일 (수) 연합중보기도모임
 21일 (주일) 교회학교 여름사역보고
 28일 (주일) 동교회 모임

9월 14일 (수) 연합중보기도모임
 18일 (주일) 권사회 주관 오후예배(헌신예배)
 세례, 입교자 교육(1)
 25일 (주일) 세례, 입교자 교육(2) 동교회 모임

10월 2일 (주일) 세례, 입교자 교육(3) 성찬식
 6일 (목) 아름다운 신앙수련회(예정)
 9일 (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세례, 입교자 교육(4), 구역모임
 15일 (토) 세례, 입교자 문답식
 16일 (주일) 세례, 입교식, 정기당회
 17일 (월)~22일 (토) 가을특별새벽기도회(예정)
 30일 (주일) 종로개혁신년주일, 동교회모임

※ 매주 토요일은 '항존직 및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새벽기도회'로 특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담임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예배후 담임목사님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권찰 다음으로!!!

할렐루야~

2001년, 주님께서서는 서른 살의 어리고 부족한 저에게 대구신암교회 불로2 구역 권찰이라는 지팡이를 맡기시고 한 해, 한 해 지나 벌써 21개나 되는 나이를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세월의 동심원마다 커켜이 쌓인 우리 구역 식구들의 희노애락과 그 모든 것을 주관 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뚝 세워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 경 숙 집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는 대면 예배 출석과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축복임을 알았기에, 새로 오신 교구장 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 2022년 권찰 위로회 초대 전화를 받고 바로 '콜'을 부르고 그 날의 감동과 감사를 짧은 스케치로 교우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 코로나 이후 첫 권찰수련회답게 담임목사님, 교구장 목사님, 권찰님들의 감격과 흥분의 버스 안 상봉 인사 나눔 후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출발, 각 좌석마다의 소곤소곤 힐링 울림, 교구장 목사님들의 인사, 은혜의 간증 등이 이어지는 동안 장거리 여행길이 깜짝하는 사이에 목적지인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후 배려와 동역을 깨닫게 한 4인용 자전거 타기, 동굴 같은 인생 여정의 끝이 천국임이 감사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 신앙의 순도가 어떤 맛일지 살짝 두려운 맘이 들게 한 오미자 동굴체험, 맑은 날은 NO! 흐린 날이라야 피어오르는 운무 풍경, 모노레일로 급경사 암벽 구간을 올라 해발 865미터 정상에서의 구름 속 체험 등 우리의 간절함을 무더지게 했던 코로나 일상에 익숙해져 간 모습을 단번에 탁 털어낼 수 있게 된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세상 공짜 없지요. 하하, 수련회 잘 다녀 왔으니 이제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주님 주신 권찰 지팡이 짚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하여 부지런히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지금을 이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3~40대의 권찰님들이 많이 오셔서 대 선배님들에게 지혜도 얻고 저처럼 사랑도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목사님, 각 교구장님, 각 구역 권찰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샬롬!!!! 

대구신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석 성도

4월



박주형 성도



5월



양분득 성도



배순자 성도



전진희 성도

6월



임혜지 성도

첫 출석 아기



박다율 21년 5월 7일
아빠 : 박성민2 성도
엄마 : 서영숙 성도



허가윤 22년 3월 7일
아빠 : 허이삭 성도
엄마 : 한상희 성도

교회학교

- 영 아 부 - 주일 오전 11시 / 나사렛실
- 유 치 부 - 주일 오전 11시 / 소예배실
- 아 동 부 - 주일 오전 11시 / 엠마오실
- 중 등 부 - 주일 오전 11시 / 미스바실
- 고 등 부 - 주일 오전 9시 / 미스바실
- 어 와 나 - 주일 오후 2시 / 엠마오실
- 사 랑 부 - 주일 오전 11시 / 베데스다실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새가족부실

DAEGU
SHIN AM

PRESBYTERIAN CHURCH



장년부

- 주일낮예배 1부 - 주일 오전 7시 30분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2부 - 주일 오전 9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3부 - 주일 오전 11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4부(청년마하나임) - 주일 오후 12시 50분 / 대예배실
-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 2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1부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2부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중예배실
- 금요성령집회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중예배실

신암평생교육원

- 대구아름다운학교 - 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오후 9시
성인 대상 / 국어(주, 야), 오카리나, 영어, 컴퓨터
- 신 암 실 버 대 학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만 65세 이상의 남녀 대상(종교와 학력 무관) / 건강, 교양상식, 신앙, 취미오락
- 행복한유니게학교 -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10분
생후 18개월~48개월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예배, 특별활동(동화구연, 미술치료, 뮤지컬 관람, 유아스포츠, 야외학습 등), 부모교육

우리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Our purpose is to know, worship and obey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발행 : 광송기 / 주간 : 김두리 / 편집장 : 김종광 / 편집위원 : 김정학 최진숙 허병기 김민주
41208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길 17(신암동)
<http://www.shinam.or.kr> ☎ 053) 955-7755